

2026년 7월 둘째 주, 구역 공과

26 결국,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0~26절(신약 148)-

예배순서

• 찬송: 309/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10/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기능은 무엇인가?(예: 통화, 카톡, 유튜브, 쇼핑, 네이버 등 검색)

말씀 속으로

세상은 “결국, 돈이다”라는 말로 수렴된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며, 돈이 인생의 만능열쇠라도 되는 듯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세상은 옳고 그름보다 이해득실을 따지는 곳이다. 『역사는 돈이다』라는 책의 주장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미국의 남북전쟁조차도 경제적 논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세상도 돈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이다. 우리는 돈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만능열쇠는 아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결국, 예배다”이다.

1. _____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이 아니듯, 크리스천이 예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유일한 기록인 ‘예수님 실종 사건’(눅 2:49)을 보라. 12살 소년 예수는 부모가 애타게 찾던 사흘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예수님에게 예배는 모든 우선순위보다 앞서는 삶의 본질이었다. 성경은 역사를 돈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배로 해석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단이 무너질 때 파국을 맞이했고, 제단이 수축될 때 회복되었다. 아합 시대는 경제적으로 번창했으나 예배가 무너져 영적 타락의 극치를 달렸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왕상 18:30)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예배당을 무당집으로 바꾸는 등 예배를 철저히 파괴했다. 그 결과 요시아 왕의 애쓰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예배에 달려 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며 곧 ‘돈’을 의미한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고 선택을 촉구했다. 우리 또한 매 순간 “결국 돈인가, 결국 예배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문화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Homo Sapiens)’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Homo Liturgicus)’로 정의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빛어진다. 돈을 예배하면 냉정하고 계산적인 차가운 영혼이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 평안한 인생이 된다.

2. _____로부터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온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나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파란만장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수치심 때문에 정오의 퇴약별을 피해 물을 길으러 나왔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질문은 자신의 기구한 팔자가 아니라 ‘예배’를 향했다(요 4:20).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지독한 공허함의 실체가 ‘예배의 파산’이었음을 영적으로 직시한 것이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대상’을 가르치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 4:23). 그리고 마침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요 4:26) 선언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셨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메시아를 전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극적 반전과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할 도구로 사용해야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신으로 삼아서 안 된다. 우리는 주일이 지나면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산다. 돈을 예배하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설 때, 자꾸 내 마음이 돈에 쏠려 돈을 사랑하고 갈망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나는 뭘 닮기 원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빛어지기 원하나?” 세상의 돈을 갈망하면 그 차갑고 잔인한 형상을 닮게 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게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가 내 인생을 빛어가게 해야 한다. 결국, 예배다.

나눔과 기도

-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참된 예배를 깨닫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내가 예배를 통해 내 삶의 고통이나 갈증이 해결되었던(혹은 깊은 위로를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여름 교육 부서 사역,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